

고용·복지 관련 언론 일일동향(4/10)

2017.4.10.(월), 고용복지팀

■ 주요 기사

○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6건)

조선	대기업 5곳 중 1곳 "상반기 채용 줄이거나 안뽑겠다"
중앙	순이익 사상 최대인데... 사람 안 뽑는 대기업들
동아	더 좋아진... 기업 23% "상반기 채용 않거나 축소"
매경	500대 기업 5곳 중 1곳 올 상반기 채용 줄였다
한경	더 좋아지는 상반기 취업문...대기업 5곳 중 1곳 "작년보다 채용 축소"
한겨레	대기업 취업문 더 좁아져...5곳 중 1곳 "올 채용 축소"

○ 대학가 경비원 감원 관련(2건)

조선	대학가에서도... 밀려나는 경비아저씨
경향	무인경비시스템 확산에...서울대도 '경비 아저씨' 사라지나

■ 주요 칼럼·사설

○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2건)

한경	[복거일 칼럼] 경제 개혁의 핵심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다
	[사설] '고용 유연성' 왜 중요한지 거듭 일깨워 준 쌍용자동차의 복직

○ 청년 일자리 관련 (2건)

동아	[사설]대기업 채용 급감... 사상 최악 취업한파 닥치나
한경	청년 일자리 없다는데... 기업들 '외환 위기'이후 자동화 투자 늘린 탓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 4차 산업혁명 및 교육개혁 관련 (1건)

경향	[강준만 칼럼] '교육노동부'가 필요하다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심상정 "성과퇴출제 없애고 노동부총리 신설" A8면
		내용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집권하면 '노동 부총리'를 신설하고, 노동절에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단상에 서는 '노동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
	고용 복지	제목	대학가에서도... 밀려나는 경비아저씨 A12면
		내용	서울대는 4월부터 인문·자연·사범대학 등 건물 25개동에 상주 경비원이 없는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숙명여대는 지난해 3월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 37명 중 15명을 해고하려 했다가 갈등. 2014년에는 서울여대가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 7명을 감원
		제목	[동서남북] 청소 아주머니들로 봄비는 구내식당 A35면
		내용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40%를 조금 넘는 수준.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총량제 등 대선후보마다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 턱없는 포퓰리즘 공약보다 작지만 따뜻한 '배려'가 앞서야
고용 복지	제목	대기업 5곳 중 1곳 "상반기 채용 줄이거나 안뽑겠다" B2면	
	내용	대기업 5곳 중 한 곳이 올 상반기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기로. 양질의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고 있음	
	제목	청년 일자리 없다는데... 기업들 '외환 위기'이후 자동화 투자 늘린 탓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B11면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으로 직업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청년들 스스로는 직업 구조와 경력 형성 과정이 바뀌었음을 이해하고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을 준비해야함	
고용 복지	제목	美·日 경기 살아나 실업률 줄어드는데... 한국은 갈수록 치솟아 B11면	
	내용	일본은 소비 회복 등에 따라 실업률이 낮아졌고, 졸업자 취업은 지난 20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 미국 청년 실업률은 금융위기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2010년 18.4%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 수준	
중앙	고용 복지	제목	순이익 사상 최대인데... 사람 안 뽑는 대기업들 E1면
		내용	주요 대기업 5곳 중 1곳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예정. 그 이유로 경기악화와 회사 내부 상황의 어려움 순으로 응답. 2016년 상장기업들의 순이익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이익률 등 지표가 개선된 것과 대조
동아	노동	제목	지하철역 10m 금연-생활임금... 조레 만들어 '사회적 어젠다' 물꼬 텃다 A18면
		내용	최저임금이 매년 8월 결정될 즈음 노·사·정 모두가 몸살. '더 올려야 한다'는 노(勞)와 '이걸로 충분하다'는 사(社), 그 사이에서 정(政)은 진땀. 이 틈새를 비집고 나온 것이 지자체의 생활임금조례
고용 복지	고용 복지	제목	스마트 공장이 실업자 양산?... "더 많은 새 일자리 기회" A10면
		내용	실리콘밸리 창업 전문가들은 "AI 기술 덕분에 사람도 예산도 소규모인 스타트업이 대기업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게 됨. 4차 산업혁명이 창업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고 말함

매체명	주 제	내 용	
		제목	더 좋아진... 기업 23% “상반기 채용 않거나 축소” B1면
		내용	한국경제연구원 '2017년 상반기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에 따르면 응답 기업 200곳 중 18곳(9.0%)은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27곳(13.5%)은 지난해보다 신규 채용을 줄인다 응답
		제목	[사설]대기업 채용 급감... 사상 최악 취업한파 닥치나 A31면
		내용	올 상반기 대기업 5곳 중 1곳이 불황과 내부사정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줄이기로. 그나마 예정된 신규 채용도 이공계 출신과 남성에게 편중돼 있어 문과 출신과 여성은 더 심한 취업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매경	고용 복지	제목	500대 기업 5곳 중 1곳 올 상반기 채용 줄였다 A19면
		내용	한국경제연구원 '2017년 상반기 500대 기업 신규 채용계획'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 5곳 중 한 곳은 올해 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한경	노동	제목	[북거일 칼럼] 경제 개혁의 핵심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다 A37면
		내용	경제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합이 노동 공급을 독점하도록 한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스름. 그런 독점에 기대어 강성해진 노조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 작동을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 방해
	제목	[사설] '고용 유연성' 왜 중요한지 거듭 일깨워 준 쌍용자동차의 복직 A39면	
	내용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에서 정상화 후, 내보냈던 직원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노조의 선택이 모두가 죽는 길이 아니라 재기를 약속하고, 불가피한 정리해고자는 빨리 복직할 수 있게 하는 길이어야 함	
	고용 복지	제목	더 좋아지는 상반기 취업문...대기업 5곳 중 1곳 “작년보다 채용 축소” A2면
		내용	국내 대기업 다섯 곳 중 한 곳은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
한겨레	노동	제목	문재인 “주 52시간 노동법 개정 안되면 68시간 허용 행정지침 폐기할 것” 3면
		내용	문재인 후보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행정지침을 폐기해서라도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간접고용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밝힘
		제목	[단독] 법원 “개인정보 침해 우려” 회사 앱 설치 거부한 노동자 징계는 부당” 13면
		내용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스마트폰에 회사 업무용 앱 깔기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 노동자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
		제목	[강준만 칼럼] ‘교육노동부’가 필요하다 26면
		내용	교육부와 노동부를 합해 교육노동부로 개편함으로써 “노동문제 해결 없이 교육문제 해결 없다”는 대원칙이나마 국민 모두가 공유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교육’과 ‘노동’을 분리시킨 칸막이 해체 공사가 필요

매체명	주 제	내 용	
	고용 복지	제목	대기업 취업문 더 좋아져...5곳 중 1곳 “올 채용 축소” 19면
		내용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200곳) 가운데 채용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인다고 답한 기업이 27곳(13.5%)
경향	노동	제목	무인경비시스템 확산에...서울대도 ‘경비 아저씨’ 사라지나 A10면
		내용	서울대가 최근 다수의 건물에 경비 노동자를 대체할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 기술발달에 따른 필연적 과정이라는 주장과 연대의식을 발휘해 일자리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
		제목	거래처와 ‘3차 노래방 접대’ 후 부상...대법 “회식도 업무 연장...재해 맞다” A10면
		내용	‘3차 노래방 회식’도 거래처 사람을 접대할 목적이었다면 업무에 해당하며 이 직후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